

해양교육의 중요성과 지리교육의 역할

윤 옥 경(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객원연구원)

1. 서론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개척지이며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무대인 해양의 중요성과 육지와 해양의 중간에 있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위치적 특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국내의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해양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교육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해양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구분해 볼 때 교육과정의 운영 전반을 통해 지리분야는 학교 해양교육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양에 대한 지리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지리교육을 통해 해양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살펴본다. 아울러 해양을 통해 지리교육의 지평을 넓혀 갈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2. 해양에 대한 지리적 접근

해양은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각 지역을 연결해 주고, 지구의 에너지 순환 등에 관여하는 주요한 시스템의 일부이다. 우리가 주로 접할 수 있는 바다의 범위는 대부분 해안지역에 국한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원양, 극지방, 심해저 등 인류의 해양 진출 범위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본고는 해양에 대해, 특별히 지리적인 관심의 대상인 해안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해양의 중요성과 해양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 및 정치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해안지역은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해수욕장과 같이 여가공간으로서의 역할이나, 다양한 바다 생물을 바탕으로 한 수산물 생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한다. 또 외국과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항구, 항구 주변의 공업지대 등은 최근의 세계화된 경제에서 해안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관이다.

한편으로 해양은 이러한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정신적 영역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본고는 해양수산부 2006년 연구용역과제 '차기 교육과정 개정관련 해양교육 강화에 관한 연구'의 내용 중에서 지리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 연구를 함께 수행하면서 도움을 주신 이기석, 안희수 교수님, 김동영, 이진봉, 김효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추억의 장소로서, 역사적 차원에서는 인류 개척 역사의 무대이면서 미래의 개척공간으로서, 정치적 차원에서는 국제 정세와 관련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해양은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통로이면서, 두 지역이나 국가를 구분하는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해양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은 해양의 경제적 가치를 주목하면서 주변국과 협력하는 반면,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

3. 해양교육과 지리교육

1) 지리교육과정의 해양교육

우리나라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해양교육 관련 내용이 있는 교과는 사회(지리), 과학(지구과학), 기술·가정(해양과학), 교양(생태와 환경) 등이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드러난 해양 관련 내용의 비중이 미미한 상태이다. 지리(사회) 과목의 경우 해양관련 주제를 다루는 경우 지역적 차원에서는 해안지역을 지리적 환경의 한 요소로 다루거나 위치적 특성을 이용한 다양한 산업과 주민의 생활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었다. 즉 지리과의 경우 해양은 독립적으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지리학습을 위한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해양교육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지리 교육과정(국민공통기본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해양 관련 내용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물자의 유통, 수산업, 어촌의 생활, 무역 등이며 중학교 과정에서는 수산업, 간척사업, 해양진출, 자연환경, 임해공업(공업지대), 교역(수출입, 이동경로), 양극지방 등이다. 고등학교 과정(10학년)에서는 주요 해안 지형과 해안선, 해양의 특색, 간척사업 및 해양 자원 개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해저지형과 해저 잠재자원에 관한 부분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고 있다.

2) 해양을 통한 지리교육

해양 관련 교육의 학습내용은 학습자에게 적합한 수준과 범위의 해양 관련 내용을 추출해야 하며, 가능한 한 해양학 전문적인 지식 내용으로의 접근을 피하면서 국민들이 폭넓은 해양 관련 소양을 갖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해양교육의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즉 인성교육, 영역교육, 경제교육, 자원 및 환경교육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이와 같은 해양을 통한 지리교육은 지리교육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해양에 대한 기본지식 교육(지리분야)	해양을 통한 지리교육
* 지형-(해안지형, 갯벌 등)	* 인성교육-(감수성, 도전과 개척정신, 미래교육)
* 기후-(해양성기후, 재해)	* 영역(영토)교육-(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독도, 동해)
* 해안지역의 생활-(어촌, 관광, 해안 공업도시)	* 자원·환경 교육-(해양자원의 개발과 해양환경)
	* 경제지리교육-(무역, 산업단지)

4.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해양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우선 시급한 것은 학교 교육에서 해양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양 교육은 해양 그 자체가 학습 내용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해양이 타 교과 학습의 소재로 자연스럽게 이용될 수도 있다. 학교 해양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배울 가치가 있고 학생들에게 필요하며 교육과정상 적용 가능한 학습 내용 요소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양 교육의 내용 요소를 해양 관련 기본 지식 교육, 인성교육, 영역교육, 경제교육, 자원교육, 환경교육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특히 해양 관련 기본 지식 교육은 학생과 국민이 해양에 대한 이해에 가장 기본이 되며 해양과 관련된 교육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데 지리교육의 내용에는 해양교육의 내용요소와 공통된 분야가 많고, 또 해양을 통한 지리교육은 해양교육의 내용요소를 학습하면서 지리교육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해양교육을 지리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해양만 따로 교육하는 것보다 균형 있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해양교육이 범교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에서 해양관련 학습 소재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등 후속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교육의 과정에서는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소재 중심으로 접근하여 학생들이 해양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관심을 가지도록 하며,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진취적인 기상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한일간 문제화 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지명에 중요성에 관해 교과내용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